

| 사진명상 |

보디사트바

Bodhisattva 2008 봄



사진명상	1
여는글	3 삼월에게_능행
경전 이야기	4 밝은 삶과 평화로운 죽음_상진
의학상식	7 완화의학이란 무엇인가?_임평환
시마을	10 변신_황희순
법문	12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_능행
임상의 글	18 부처님 뜻대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_장용열
대담	22 구도자의 길_문진희
자연요법	27 내 몸의 의사는 바로 '나'_두경우
편집부 탐방 26기 호스피스 교육	31 함께 배를 탄 사람들_능인
	33 제26차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며_혜안심
	34 참 행복합니다!_덕현(26기)
	35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_덕현(25기)
호스피스 활동 이야기	36 그녀를 보내며_김경숙
	36 여행_지오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42
관자재병원 건립봉사 안내	45
정토마을 안내	46
후원가족 안내	47
호스피스 교육 안내	48

보디사트바 2008년 봄호, 통권 제1호, 2008년 3월 10일 발행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인 능행 | 편집장 정건 | 기획위원 강옥희 변은숙 황희순 | 편집위원 상진 박정선 강백지 변은숙 김성규 장용열 김경오 |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전화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전화 (052)264-1007 · 0117 팩스 (052)264-0209 | 인쇄처 아미울 | 비매품



삼월에게

빠르기를 쥌 수 없는 시간을 타고 우리는 끝없는 생
멸을 경험합니다.

무상이란 두 글자가 아릿한 겨울바람 되어 뺏속을 스
쳐 지나가고 어느새 만물의 약동을 만나는 삼월이 되었
습니다.

후원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온하셨는지요.

매월마다 보내드리던 작은 소식지가 이제부터는 계절
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한 번씩 정토소식을 고이고이
담아서 일 년에 네 번, 정토가족을 찾아뵐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온한 삶의 따사로운 가슴이 타인의 힘겨
운 삶을 품어 안아주는, 꽃 피어나는 봄이었으면 좋겠
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아름답고 빛나는 내 삶을 그늘 지우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의 뜨락에 봄 햇살이 내리쬐고 항상 열린 가슴으로
삶을 채워 가신다면, 언 땅이 녹아내리듯 우리들의 달
린 가슴도 봄 땅처럼 녹아서 만물을 길러내는 토양이
될 수 있겠지요.

건강을 잃는 것은 나의 우주를 잃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존재할 때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평
온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사로운 봄, 정토마을 후원가족 한분 한분 삶의 뜨락
에 제불보살님의 돌보심과 지고한 가피가 충만하시어,
평온한 나날 되시고 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도합
니다. 卍

간월산 아래에서 능행 합장



밝은 삶과 평화로운 죽음

상진 | 26기 호스피스

얼마 전 TV 드라마를 시청하다보니 극중 인물의 “998834하세요.”라는 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고 죽음을 맞이하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명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무겁다거나 부정적인 이미지의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하~! 정말 잘 살다가 죽으라는 메시지구나.’라는 편안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죽어가고, 죽어가며 살아가는 이중적 존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고정된 사실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타인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착각하고 그 사실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말을 연상하는 것조차 두려워 결국은 자기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간 과거의 잔상에 매여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등 많은 증오와 분노 속에서 병(病)을 키우며 살기도 합니다. 또 불과 10초 앞도 모르면서 불확실한 먼 미래를 내다보며 견잡을 수 없이 치달리는 오감(五感)을 만족시키는 쾌락이 진정으로 밝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는 착각들로 스스로에게 거침없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 프라세나짓왕은 ‘늙음과 병과 죽음’의 세 가지 법(法)을 온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 삼법(三法)을 여쭙습니다.

프라세나짓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 쪽에 물러앉아, 그 생각한 바를 부처님께 자세히 사뢰었다. 부

처님께서서는 프라세나짓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소. 대왕이여, 그렇소. 대왕이여, 여기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오. 그것은 늙음, 병, 죽음이오. 세상 사람들도 여래께서 깨달으신바 법을, 사람들을 위해 널리 연설하심을 알았소.”

그때에 세존께서는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대왕이 타는 그 보배 수레도
마침내 낡아 썩고 말지니
이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변하고 변하다 마침내 늙으리라.

오직 여래의 바른 법만은
쇠하고 늙은 모양 없나니
그 바른 법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안온한 곳으로 가리라.

다만 범부들 쇠하고 또 늙어
추하고 더러운 꼴 중생들로서
쇠하고 늙기 그대로 계속해
우부(愚夫)의 마음을 어리게 하네.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살더라도
죽음이 따르는 것 언제나 걱정되고
늙음과 죽음을 다투어 쫓으면
틈을 엿보다 곧 해를 끼치네.(잡아함경 제46권 1240. 三法經)

위의 내용은 잡아함경에서 발취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제행무상’으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성주괴공(成住壞空), 혹은 생주이멸(生住異滅)으로써, 생겨나서 유지되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네 가지 과정으로 존재함을 뜻하는 것으로 즉,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이 일체 존재의 진실한 존재양식을 분명히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죽는다고 하는데 인간의 몸뚱이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고정된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뚱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 등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떠한 고정된 불변의 요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쫓는 명예·권력·재력도, 또 우리가 싫어하는 무시·구속·가난·고통 등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제행(諸行)이 무상(無常)함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크나큰 고통의 원인인 과(果)가 됨이니, 인간이 좋아서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관인 밝게 살고자 하는 삶은 밝음이 아닌 무명(無明)이니 어찌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으면 업이 정화되고 정화가 되면 맑고 향기로워져 짧디짧은 자신의 삶에 기쁨과 밝음이 있게 될 것이니 신명나는 세상살이에 밝은 삶이 담보되어 이르는 죽음이야말로 온전한 평화로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마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중부경전)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림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아함경) 一六





완화의학이란 무엇인가?

임평환 | 임피부과원장, 정토마을 주치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음이라는 현실에 당면하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고,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환자 본인 외에도 가족·친지 그리고 지인들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과 같은 인간적인 슬픔뿐 아니라, 젊은 임종인의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산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된다.

임종인의 의학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임종할 때까지 환자가 겪는 육체와 정신으로 대별되는 죽음의 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처하기가 좀처럼 쉽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말기암 등으로 현대의학의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병원으로부터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을 할 경우, 만일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이거나 가족들에게서 묵인된, 죽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겪어야 하는 당연한 불편이나 통증으로 치부해 버릴 경우, 환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디어야만 되고 방치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어느 임종이라 하더라도 의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임종을 앞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의 조



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아무런 의학적 상식 없이 임종하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인 동시에 무지에 의한 폭력일 수가 있다.

임중에 임박한 사람은 누구나가 중환자이며 적극적인 의료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서 영육이 격심한 불편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암이나 기타 질환으로 임종을 맞이해야 할 환자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는가?

일단,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는 그 순간부터 이미 중환자이며 적극적인 의료를 받으며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할 권리가 있다.



완화의학은 환자의 육체적·정신적 통증으로 대별되는 불만족스러운 문제들을 해결 내지 완화 목적으로 주로 의료권 안에서 의료인이 행해지는 의학의 범주에 속한다.

죽음은 멀리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척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임중에 대한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임종자를 좀더 인간적인 권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이 호스피스이다. 그런데 일반인 중에서 완화의학이나 호스피스의 역할

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5명 중 4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마무리되던 90년대 말경, 서서히 의료인에게도 완화의료학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의학도 치료의학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방치되었던 이 의료의 영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완화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였던 곳까지 미미하게나마 손길을 뻗치고 있다.

완화의료는 말기암과 같은 갖가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합리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의료인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삶을 뜻 깊게 마무리 짓고 죽음



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호스피스 역할까지를 완화의료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완화의료의 정착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우리 사회의 의료복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이 있다면, 우선 영리화 상업을 넘어선 순수하고 정성스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착되어 이 사회가 좀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인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완화치료 조직망이 형성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ㅍ



변신

황희순

가으내 꽃처럼 피어 있던 흥시

똥덩어리처럼 변신하여 동면에 들었다

함박눈 내리고 까치가 쪼아대도 꿈쩍 안 했다

봄이 성큼 다가와 동면에 든 그를 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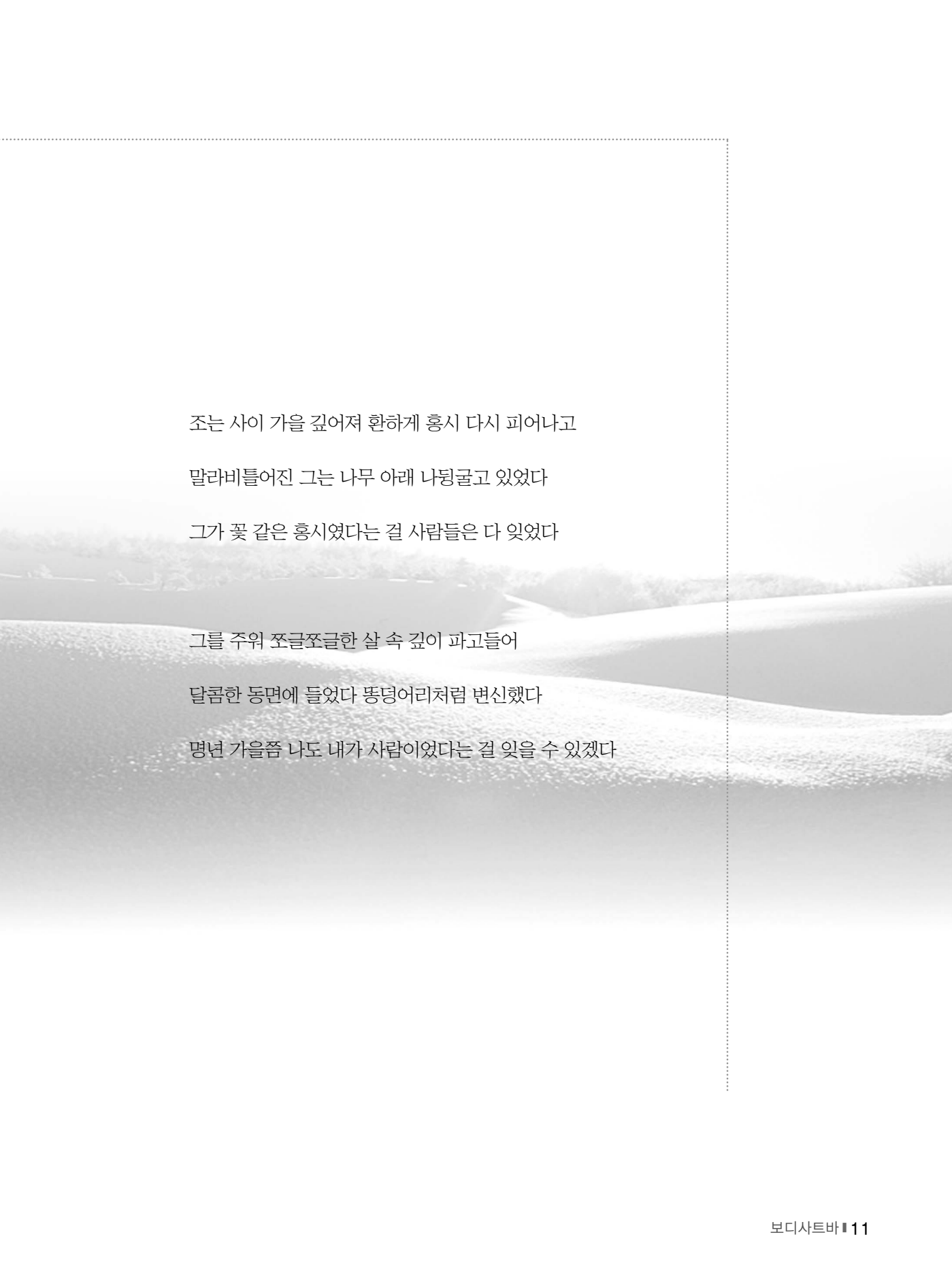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목 떨어져라 그 광경 지켜보다 깜빡 졸았다



황희순

- 충북 보은군 회남 출생
- 《현대시학》 등단
- 시집 『새가 날아간 자리』 외 2권



조는 사이 가을 깊어져 환하게 흥시 다시 피어나고

말라비틀어진 그는 나무 아래 나뭇굴고 있었다

그가 꽃 같은 흥시였다는 걸 사람들은 다 잊었다

그를 주위 쪼글쪼글한 살 속 깊이 파고들어

달콤한 동면에 들었다 뚱뚱어리처럼 변신했다

명년 가을쯤 나도 내가 사람이었다는 걸 잊을 수 있겠다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Well-being, well-dying’



능행 | 마하보디교육원장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이 먼저인가 죽음이 먼저인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먼저이고 죽음은 살고 난 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 즉 인간다운 삶을 살고 난 뒤에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이며 의미 있는 죽음이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이 둘은 각각 별개의 문제인가?

태어남도 고(苦), 죽어감도 고(苦)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깃들고 죽음도 함께 깃들어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그 여정을 삶이라고 한다. 즉 삶과 죽음은 처음부터 같이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을 따로 생각하여 정작 죽음이 왔을 때 당황스러워하며 혼란을 겪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렇게 되면 웰빙(well-being)도 아니고 웰다잉(well-dying)도 아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고 성공적인 삶이 되며 멋지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생을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평생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는데 진정한 행복했던 순간이 일생 동안 열 번도 안 된다는 것은 만족했던 순간이 열 번도 안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욕망 속으로 질주를 한다. 앞도 뒤도 돌아볼 새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

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행복은 욕망에 내몰려서 고생에서 고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끝없는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면 괴롭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에서 삶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는 허기짐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삶의 여정

■ 탐진치(貪瞋痴)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은 불교에서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근본적인 세 가지의 번뇌를 말한다. 탐(貪)은 탐욕과 탐애(貪愛)로, 자기가 즐기는 대상을 탐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瞋)은 진에(瞋恚)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반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이다. 치(痴)는 우치(愚癡)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거나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삶의 여정은 이 세 가지 번뇌와 어리석음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하



다.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게 되고 이는 불면증을 가져와 정신을 황폐하게 한다. 현재 병원의 진료 과목 중에 정신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끝없는 물질에 대한 욕망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과 행복의 근원은 돈이라는 망상에 빠져 부모형제와 의절하고 자식을 내버리기도 한다. 인간성 결핍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로 후회와 한탄 속에서 임종을 맞게 된다. 따라서 죽는 사람의 약 90% 이상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끌려간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에 억지로 끌려가는 형상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 죽음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각 개인이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물질과 관련된 욕망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돈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며 재산 정리를 하느라 남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산이 많을수록 정리할 일도 많으며 바쁘다보니 가족과 같이 할 시간도 없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도 없다. 끝내는 혼자서 쓸쓸히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십 평생을 살았어도 눈이 오는 것을 오롯이 볼 수 있고 눈이 하얗다는 것을 온전히 느낀 순간이,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였다고 한다. 죽음에 임박하여 그 존재를 느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개인의 물질적 욕망과 함께 죽음을 거부하도록 길들여진 사회의 모습도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다.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것과 죽음을 바라볼 때 매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모두 혐오스런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예전에는 집안에서도 정침, 즉 안방에서 죽지 않으면 객사로 여겨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밖에서 죽지 않도록 죽음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현대인들의 인식은 환자가 집에서 앓다가도 죽을 것 같으면 병원으로 옮겨서 임종과 거의 동시에 냉동실로 옮겨지게 하고 있다. 가족의 죽음조차도 못 볼 것을 본 것같이 여기거나, 혹은 죽음 자체를 혐오스럽게 여겨 회피하는 모습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과 접촉할 기회를 빼앗아 내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게 한다. 우리의 존재가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린 사는 동안 왜 그리 정신없이 죽기 살기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목표점은 어디이며, 우린 그 목표점을 향해 올바르게 달리고 있는 것일까? 목표점을 모르고 달리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한 자각이 웰빙(well-being)이고 웰다잉(well-dying)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즉 웰빙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인생의 종착역에 잘 도착하려고 노력한다면 웰빙, 즉 잘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웰빙과 웰다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자연의 질서 사람의 일생

자연의 질서인 계절의 변화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다른 점이라면 죽어 가는 여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갖가지 고통들의 내용이 각기 다를 뿐이다. 계절의 바뀜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김없이 그 순간에 오고 간다. 사람의 일생도 그와 같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 나무가 옷을 바꾸어 입듯 죽음은 우리의 옷을 바꿔 입게 한다.

한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한사람의 움직임이 태양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가진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당당하고 자유롭다.

성공적인 인생의 마침표

죽음을 님으로 맞이할 것인가? 죽음이란 놈에게 끌려갈 것인가?

이 과제는 오직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스스로 꽃을 피운다. 일생 중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해와 배려가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다면 삶은 따사롭고 풍요로울 것이다.

■ 죽음은 진실한 삶의 결과

죽음은 사람이 모여드는 인생의 종착점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걸작품이다. 그러나 약 90%의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묶여 준비 없이 죽음에 끌려가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내용의 드라마 주인공들이다. 명예와 권력, 학벌과 재산, 젊음 그 어떤 의상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사람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고통과 갖가지 상실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배우게 된다. 삶 안에서 죽음을 느끼고, 죽음이 삶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잠시 머물다가 영원으로 사라지는 우리 존재의 본질을 안다면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고 한순간을 영원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즉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의 경험에서 시작되며, 일생에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 삶에서 경험하는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끝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의 다양한 경험이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은 자신의 죽음의 질을 결정짓게 된다.

■ 죽음에 대한 자각과 성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성찰은 삶을 온전하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죽음이 외면당하면 삶도 온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 삶의 의미는 달라진다.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삶, 화해하지 못하고 죽는 삶, 배려받지 못하고 죽는 삶,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 삶,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삶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깨어서 살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결정된다.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을 때, 나간 숨이 들어오지 못할 때, 즉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영혼(靈魂)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생과 멸은 찰나에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라! 내일이 없는 삶 속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삼법인의 가르침을 통한 자각과 성찰이 죽음을 사실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연습이 되어 줄 것이다.

죽음 앞에서 아무런 후회 없이 설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웰빙(well-being)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마지막을 서로 축복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웰다잉(well-dying)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시 「낙화」 六

채록자 | 변은숙, 24기 호스피스



부처님 뜻대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장용열 | 25기 호스피스

검사, 그리고 암 판정

2006년 12월경부터 치질이 항문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움직일 때마다 항문이 시깃시깃하다던 아내가 치질 수술을 하자고 했다.

2007년 3월 치질 수술을 위해 인근에 있는 병원에 들렀다. 진찰을 하던 의사는 단박에 ‘치질이 아닌 것 같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진단과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다. 놀랍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 말기였고,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되어 있으며, 항암치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애써 마음을 진정해 보았다.

‘그래, 70살에 생길 것이 30년 빨리 왔을 뿐이다. 맘 굳게 먹자.’

그러나 직장 노동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던 나는 귀가가 늦어졌으며, 아내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다. 더구나, 2006년 1월 사무총장에 당선된 뒤부터 그만두라는 아내와 다투고 난 후 1개월 침묵, 어떤 경우에는 2~3개월간 아내와의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안팎으로 힘들었고, ‘이 짓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절에 가서 108배 하고, 금강경 읽고, 아내를 향해 마음이 누그러지길 발원하였다. 그래도 나의 번민은 계속 쌓여만 갔다.

제25기 불교호스피스 교육 받으며

2006년 여름에 읽었던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책을 떠올리면서 인터넷에서 ‘정토마을’을 검색하게 되었고, 제25차 불교호스피스 교육이 2007년 8월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 어찌면 지금 내 마음을 잡아줄지도 모르겠구나.’

기대를 걸고 신청을 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받는 동안 내내 아내의 ‘직장암’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아내의 암 투병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를 애들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화두였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맘을 이해시켜 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나는 어찌면 그렇게 내 아내에게 나그네였고,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방관자였을까.’

그런 자각과 함께 아내와의 다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리고 현재의 병 원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나에게 대한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에 대한 연민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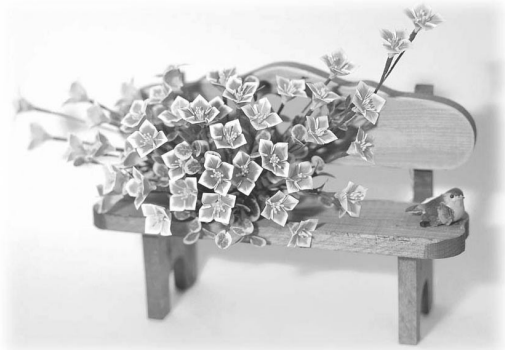
능행스님은 교육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분노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등 자신을 파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서럽게 했으며, 자신을 외롭게 했습니다. 자신을 못났다고 했으며, 자신을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밖으로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장이 살아남기 위해, 육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자신의 존재를 꼬옥 온몸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을 듣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내 자신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을 쏟으며 참회하였다. 내가 바깥으로만 끌려 다니며 사는 동안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자신의 아집을 본 것에 감사하며

나는 5남 1녀 중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누님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집을 갔다. 우리 집에 여자라고는 단지 엄마 혼자였다. 밤늦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도 누구 하나 밥을 해놓지 않아서 엄마가 그 지친 몸으로 밥도 하고 방청소도 하였다.



나는 자라면서 여자에 대한 배려와 여자들의 생각, 여자들이 말하는 법 등을 배우지 못했다. 그냥 내가 잘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였다.

큰애 임신 중에 시원한 것 먹고 싶다는 아내 말에 나는 고작 아이스크림을 사주었고, 추석이나 설날 시골에 가는 날이면, 아내가 내게 “나는 시금치의 ‘시’ 자도 싫어한다.”고 말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시골만 가려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차라리 시골 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버렸고, 그 말로 인해 명절 내내 서로가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시’ 자를 싫어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그때 정말 몰랐다. “그래, 나한테 시집 와서 힘들지, 그리고 시골에 가면 당신이 일을 많이 해야 될 거야. 힘들어도 참어.” 이렇게 말하고 위로했어야 했는데, 그때 나는 아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려서 잦은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다.

입원, 수술, 그리고 부처님 가피

2007년 12월 19일 새벽, 결국 항문으로 변이 나오지 못하던 것이 위태로워지면서 조선대학교 응급실로 직행하였고, 오전에 능행 스님과 전화 통화 후 곧바로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직장암으로 항문이 막혀 대장 속에 변이 쌓여 있는 것이 극에 달한 것이었다. 장은 본능적으로 운동을 하여 항문 쪽으로 보내는데, 항문이 막혀 있어서, 육안으로도 보면 탄탄하게 굳어서 불룩한 것이 보였다.

2007년 12월 21일 새벽, 내내 부풀어 올라온 배를 부여잡고 진통제 투여와 고통을 호소하는 마누라 손을 잡은 채 가슴을 조이다가 아침을 맞았다. 참으로 우리는 많은 말들을 나누었고, 아내의 착한 마음도 보았으며 내 자신의 아집도 보았다. 오후에 수술 준비를 위해 간호사님들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

저 수술(대장에서 변을 빼내기 위한 장루 수술임)이 잘 되길 바랄 뿐이었다. 3시간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회복실에 달려가서 아내 얼굴을 보니 너무 좋았다.

빙긋 웃는 아내가 그냥 고마웠다. 나는 ‘이게 반가움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죽이 흘러나오는 웃음으로 아내를 보았다. 너무 잘된 수술이었다. 모두가 부처님 가피와 여러 도반들의 기도 덕택인 것 같았다. 아내의 수술 사실이 호스피스 동문방에 알려진 후 아침 7시와 저녁 10시에 ‘찰나기도’를 간절히 해주신 스님들과 동문님들께 어떻게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아직도 완벽하게 아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종종 아내는 내게 독설을 퍼붓는다. 그래도 감사하다. 수술 전까지의 2박 3일의 시간은 나와 아내의 현생의 업이 녹았던 시간이었으며, 연애시절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때만은 이 세상 모두가 청정해 보였었다. 아내는 내게 아버지 같은 남편의 모습을 기대한 것 같았으나, 나는 언제나 내 몸 편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 아내에게 보채기만 하는 어린 남편이었다.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이 흘렀다.

질병, 수행의 도구로 삼아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새벽부터 12월 21일 금요일 집사람이 입원하여 장루(腸瘻)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많은 도반님들의 쾌유 기도를 느껴보니 부처님의 가피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깊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의 명심문을 만들었다.

“부처님 뜻대로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내의 아픔을 계기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며 더욱더 부지런히 정진 수행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아내와 즐겁게 웃어보겠습니다. 모든 인연에게 회향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나의 도반과 일체 중생들이 아픔에서 벗어나 부처님 전 복짓기 발원합니다.” 卍



구도자의 길

문진희

Q 한국 비구니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가?

A 나는 여성구도자로서 인도 출신이다. 인도는 정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구도자는 찾는 자이다. 수행자가 이것저것을 본다면, 구도자는 잡은 것을 뚜렷이 보며, 목표를 정확하게 찾는 자이다. 그리고 헌신자는 그것 자체를 모두 맡긴 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인도의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인도의 브라마쿠마리스의 라자요가 명상을 테마로 하는 ‘세계영성대학교’가 있다. 그곳의 리더가 “앞으로 여성들의 체계를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며 70년 전부터 여성을 교육시켰다. 현재 90세의 비구니 노장들이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분들의 모토는 정직과 순결이다. 이 두 개가 받쳐줘야 구도자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정직해지고 순결해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세계 각 국인이 모이는 프로그램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모인다. 이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을 다루고 영혼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므로 반드시 여성리더들이 구경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라다수암을 따르고 있는 수행자다. 그곳은 ‘빛과 소리’를 수행한다. 수행자들에게겐 계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율을 어긴다면 누구도 구도자라 할 수 없다.



Q 한국 불교계의 계율은 어떤 실정으로 보이는가?

A 계율은 250계 340계가 아니라, 각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승려는 구도의 접근방법이 허술하다.

구도자와 승려를 분리해서 볼 때, 그 근본 토대를 수행에 두고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구도자는 자기 자신 다스리는 법을 많이 공부한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단계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스님은 우선 자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기치유를 해결하지 못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선방인지 공양간인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도자를 모르고 있다. 성인들도 처음엔 종교인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구도자로 걸어갔다.

종교인과 구도인은 높낮이가 아닌 격(구분)이 다른 것이다. 종교인은 종교를 얘기하지만 구도인은 진리를 얘기한다. 즉 이 세상에 오셨던 모든 성인들이 그저 고향으로 데려가고자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자들이다. 이제 철의시대 마지막 이기에 합류시대라고 할 수 있다. 구도자는 명상과 영성의 길을 걷는 자이다. 이제 개인의 영혼과 의식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스님들은 장거리 선수이다. 훨씬 유리한 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심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까 모르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본다.

Q 개인적 구도의 길은 어떠하였는가?

A 한마디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깨닫기 위함이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 어머니의 권유로 시바난다가 쓴 요가책을 보게 되고 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요가원을 찾아가 요가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또 인도를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의지하고 믿던 서용 큰스님께서도 요가를 권유하셨다. 요가는 내가 살았던 어느 전생의 기억 같다.

인도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났고 그분 역시도 요가를 권유하셨다. 그러다가 링링포체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 역할도 했었다.

나는 서용 큰스님과 달라이라마 두 분 외의 스님들을 접하면서 불교를 떠났다. 하지만 그것이 구도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불교를 통해서 그리고 요가수행을 통해서 헌신자로 거듭난 것이다.



Q 자기치유 과정에 대한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A 단계별이었다. 처음, 서용 큰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을 배웠다. 그때 스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신 후 옷을 말끔히 입으시고 가르치셨는데 나에게 부처님에 대한 예의를 보여주셨던 것 같다. 모든 것을 마치던 날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하늘을 보는 순간, 인간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느닷없이 알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를 이해했고 여성으로서의 치유가 자연스럽게 왔다.

다음에 달라이라마와의 인연을 통해서였는데, 순수성이 가장 강한 어른을 보면서 나의 전생을 보는 탕치유가 있었다.

또한 라즈니쉬와의 만남에서도 구도의 전업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도를 안심하게 되었다.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60세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는 또 70세를 기다린다. 정해진 것을 알고 간다는 안정감으로 가득하다. 무엇이 되고자 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길을 걸어온 것을 볼 때 나는 복된 전업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Q 비구니스님들의 치유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A 제대로 하려면 호되게 치유해야 한다. 몸뻐 입고 추운데 달리기하듯이 해야 한다. 승려가 된 자신을 찾아야 한다. ‘표면화된 전생에서 어떤 원력을 세웠길래 승려인가’를 찾아내라.

나는 5년 전 아바타의 지도자 해리팔머를 만났을 때, 그 어른이 “당신은 갑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말에 항복했다. 그러면서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를 찾았다. 제일 얇은 의식에서 본다면 우선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고, 5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들쭉시며 십악중죄를 가지고 텅굴다가 다시 명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용기가 없었다면 그 갑옷을 벗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하자. 이생에서 하자.”라고 하며,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치유를 하게 되었다.

본인이 각성되어 있기만 하다면 치유될 수 있다. 외국에서 전통수행한 자를 수와 미라 한다. 그들의 열 분 중 8명은 치유된 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스님들은 경직되어 있고 자기들만의 세계가 너무 많다. 열 분의 비구니 스님 중 내면의 치유가 된 분은 한 분도 보기 드물다. 이는 눈 밝은 어른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모두가 가는 과정일 뿐이다. 잘되거나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Q 환희심이란 무엇인가?

A 강에 떠있는 붉은 해를 보면서 ‘내 생각 없음의 상태’, 즉 ‘그것과 하나 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가 붉다’는 한 생각을 하는 순간 끝나버린다.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껍질을 벗겨야 한다. 아난다의 희열이 되려면 껍데기 즉 척하기 네 개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알맹이가 나온다.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그 자체가 환희심이다. 그런데 ‘잘 클까?’라는 한 생각이 오면 끝이다. 다 깨지는 것이다. 다중인격자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수많은 자신이고, 빙의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Q 명상과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명상은 ‘치유하는 것’이다. 상처를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24시간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기도이다. 생각에는 네 종류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 낭비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필요한 생각이 그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고, 낭비적인 생각이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이다. 즉 “내년엔 어느 선방을 가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인 긍정·필요한 생각이 곧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으로 내가 안심한 것은 불과 2년 되었다. 그리고 그 한두 가지 찾아내기가 지가 20년이 걸렸다. 그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마음에 든 것을 내 것 만드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51살까지 그런 기질을 몰랐다. 그것조차 도둑질임을 알아채고 난 후 정직해질 수 있었다. 예전에 서용 큰스님께서 “선은 넘어야 지.” 하신 말씀을 그때 알았다. 선은 넘어야 정직함을 보는 힘이 생긴다. 마지막 삼스카라[도둑질]가 푹 떨어져 나가던 것을 기억한다.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다. 움직이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 윤회하게 하던 장애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고 이제 안한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24시간의 생각이다.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기도다. 크리스나의 “나만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기억하라. 진리는 종교가 이어가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오시면서 이어간 것이다. 그분들의 그 ‘하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卍

대담 정리 | 편집부



문진희

- 영성 교육 지도자(요가철학 Ph.D)
- 인도 B.Y.B. 요가대학원대학교 한국분교장
- 국제명상협회 <요가샷상> 대표
- 미국 L.A. 워싱턴 라디오 서울 “명상의 시간” 진행자
- Yoga International Trainer
- Avatar International Trainer
- <요가샷상> 리트리트 센터 대표
- 역서 『여성을 위한 요가, 요가호흡정식, 구도자의 길』
『The Eye of the I (나의 눈), 티벳인간과 문화』



내 몸의 의사는 바로 ‘나’

두경우 | 다르마요가원장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수긍할 만큼 당연하고 용이한 내용이라 다소 허접하다 할지라도 생·노·병·사에 대한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 자연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박한 이들에게 얼마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출발한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거대한 병원들도 불쑥불쑥 일어선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질병도, 약봉지도, 의료비도 높이높이 쌓여간다. 헤아릴 수 없는 특혜에 미소를 띠던 우리 몸들은 급기야 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인들은 일터인 양 병원으로 출근하고, 희귀병은 어느덧 보편질환으로 바뀌었으며, 성인병은 이제 연령제한을 한껏 낮추었다. 최첨단 의료장비로 무장한 의학이 전면에서 지휘하고 있는데도 질병의 꼬리는 길어지고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은 어인 조화인가?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고, 필시 곡절이 있지 않을까? 갖가지 예방주사와 비상한 약품들이 즐비한데도 어찌자고 적들은 사망을 포위하고 진군을 멈추지 않는가? 혹여 질병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태가 이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조근조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질병을 다루는 일에는 기본적으로 두 방식이 있다. 하나는 투쟁적 방식이고 또 하나는 예방과 조화의 방식이다. 증상 제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은 대부분 투쟁의 방식이고, 이는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방식이다.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제 아무리 가지를 잘라내도 그 뿌리가 굳건하다면, 또 짝은 움터나고 꽃이 피고 머지

않아 ‘악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것은 원인을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만 구하기 때문이다. 적이니 무찌르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듯 질병도 마찬가지다. 내부구조가 정갈하고 안정되면 자리할 수 없는 것이 질병이다. 많은 급성질환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 지 결코 병으로 불일이 아니다. 이 자연 치유력을 소멸시키는 강제적 치료기법이 축적되면 결국 만성질환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어떠한 외부적 치료도 한계가 있다. 내부에서 정리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근본치료는 요원한 것이다. 무엇을 집어넣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부터 해결해야 한다. 물론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외부적 치료를 해야 하지만, 내부에 그 뿌리가 있다면 내 몸이 부르짖는 아우성을 경청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현대의학의 지대한 업적을 무시하는 의미를 넘어, 인체를 기계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에 앞서,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대처해야 뒤달이 없는 것이다. 인체는 결코 기계가 아니고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며, 인체는 또한 작은 우주인 것이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언제 한번 제대로 앓아본 적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조금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작은 증상에도 곧장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다. 색깔 구분 없이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모두 종교가 되었다. 신의 언도에 운명을 달리한다. 시급을 다투는 질환도 있겠지만, 대개의 급성 질환들은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증을 주는 것일 뿐이다. 또는 새로운 외적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내적 반응이다. ‘믿습니다! 이 고통을 사하여주소서!’ 매달린다면, 도리 없이 피어난 꽃을, 가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증상의 뿌리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니 또 다른 가지에서는 더욱 튼실한 열매가 맺을 것이다. 단순한 질환의 통로가 봉쇄되고 막아내느라 독을 사용했으니 점차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만성질환으로 공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믿어야 할 때 믿더라도,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남용으로 점차 맹신도가 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 몸의 의사는 자신의 생명력이고, 내 몸의 권위는 내가 지녀야 한다. 건강한 장수마을에 뛰어난 의료시설이 많아서인가? 의료시설이 선진화되고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고 건강해지는가? 오히려 의료에서 멀어야 천수를 누린다.

야생동물이 아프면 먼저 휴식을 취한다. 음식을 거부하거나 진흙 속에 몸을 담그고 자연이 해결해 주도록 내버려둔다. 하는 일이라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날던 새가 날개 아프다고, 소화 안 된다고 ‘의무병!’을 부르겠는가? 야생동물이 비만, 당뇨, 혈압, 암으로 골골하다 죽어가겠는가? 그저 고목 쓰러지듯 한순간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지. 자연의 힘이 능히 치료할 수 있고, 내 몸의 자연성이 돌려놓거나 시절인연이 다하면 대자연의 품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에서 답을 찾자는 것이다. 막고, 자르고, 싸우는 투쟁적 방식이 아니라 순리를 따르고 몸과 자연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것이다. 아프면 그 이유가 있고 해법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아프면 무엇을 넣기보다, 비워서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순리다.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질환이 얼마나 되겠는가? 많고 넘쳐서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 쌓여서 정체된 찌꺼기들이 질병의 밑거름이다. 몸도 마음도 비우는 것이 작금의 순리다.

결국 이 말들의 저변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붓짐 싸서 지리산으로 강원도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살피고 거울삼아 순리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건강한 삶이다.

왜 내 몸을 의사에게 의탁하나? 그들은 조연자이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다. 설령 기계적으로 몸을 이해한다 해도 내 몸의 운행을 내가 할 일이지 늘 대리운전을 부탁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다. 내 몸을 운행할 도구는 자연이라는 거울이고 그 운행은 결코 난해한 일이 아니다. 저 들짐승, 날짐승들이 6년 교육을 받아야 건강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산천을 뛰어다니는가? 우리의 본능과 몸의 외침을 들어준다면 그리 심오한 지혜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내 몸을 바르게 알고 치유할 수 있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허접하고 뻘한 이야기가 그림직하게 들린다면, 우리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다.

자연이라는 고향마을에서 六

두경우

- 1991년 다음시대의 대안은 자연뿐이라는 생각으로 인도로 감
- 뿌나대학에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배움
- 간디 다르산 아카데미 자연의학대학에서 자연의학과 카이로프라틱 익힘
- 휴메스 렐스라인이라는 통합의학과 빈민구제를 위한 의사들 모임을 결성 빈민을 도움
- 간디 자연치유아쉬람에서 외부의사로 활동
- 뿌나에서 작은병원 운영
- 2007년 15년의 인도살이 청산하고 지리산에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음



참 행복합니다!

덕현 | 26기 호스피스 교육생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 전에는 부정적 영혼의 요소가 많아 절망하고 혼란스러웠으나 교육 후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습득하게 되어 신념만 있으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타인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고 자신의 사된 욕심을 버려야 몸 따로 말 따로 마음 따로 따로국밥으로 살았던 혼란스러웠던 이 인생이, 일치형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정토마을과 관자재병원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정말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시는 스님과 자원 봉사하시는 불자님을 뵈오니 불보살님들께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국토가 수습역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는 것처럼 환희심이 생깁니다.

죽음체험 후 이렇게 헛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생전의 이 업을 어떻게 감당할까? 바로 지옥행..... 지옥도 극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념염불, 척하지 않는 진실된 선행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원력보살이 되리라 큰 서원을 세웁니다.

내 자신의 성찰과 의식이 깨어나는 인생역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기 선배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미소에 감사드립니다.

공양간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 그 음식 먹고 참 행복했습니다. 卍



함께 배를 탄 사람들

능인 | 25기 호스피스, 26기 교육 사회자

경적을 울리고 깃발을 세우고 이미 배는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6기 교육을 마친 후 소감을 말씀드리면 '항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짧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마음 그냥 지나치기엔 무엇인가가 계속 외치는 소리에 놀라 마음 평안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6개월간 계속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사회자'라는 소임, 사실 그냥 말만 잘하고 적당히 때우려 했던 무책임한 마음 때문인지 정작 26기 입재식 날 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뭔지 정리도 안 되고 몰려오는 피곤함과 복잡 다양한 마음 때문에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대중공포까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그려져 있는 한 폭의 풍경화라는 표현은 너무 가벼운가요?

풍경화라는 표현으로 감싸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니 힘든 면이 더 진한 색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제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지라 무조건으로 마음을 그곳에 담그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론 교육생들의 반영이 내게로 와 마음을 누르기도 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 자신조차도 몰인정하게 내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론 사랑으로 때론 엄함으로 함께한 교육생들이 이젠 추억 풍경으로 내 가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는 그저 교육 잘 받고 잘 느끼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 반면 '사회자'라는 소임 아래 저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관대해지려 노력하고 관세음보살님처럼 포근한 옷자락으로 대중을 감싸고 감로수로 목마름을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제 자신을 성숙케 하기엔 더 없는 아름다운 항해였습니다.

운영진이 아닌 또 다시 교육을 받는 느낌으로 교육프로그램마다 전념을 다하려 하는 제 자신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설렘과 충만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미소만 지어질 뿐이지요. 본사로 돌아와 자라나는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니 그곳에서의 추억은 편안함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엔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엔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엔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엔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엔 온전함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고 먼 항해이지만 사랑으로 노를 젓고 평화로움으로 깃발을 올리고 행복함으로 함께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실어도 가라앉지 않는 그 배에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사랑으로 충만케 해준 26기 교육생과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삼배 올립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밟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호스피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일부로 자리를 내어준 수행의 온전함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卍



제26기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며

혜안심 | 21기 호스피스, 26기교육 습의사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야심만만한 일은 밝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창안하신 능행스님!

딱 차인 일정 속에서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잠시의 빈틈도 없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생들, 멀리서 오셔서 최고의 법문을 들려주시는 스님들과 강사 선생님들, 맡은 일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내려는 팀장님들과 습의사님들, 그 어느 호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진미를 공양해 올리는 25기 호스피스 공양간 봉사자님들!

한 편의 장엄하고 멋진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몸뚱이 고달픔도 최고였지만 행복도 최고였답니다. 무지했지만 소중한 귀한 나로 깨어남도 최고였답니다. 인색했지만 서로 베풀고 나눔을 배웠지요.

내 안에 가득한 사랑과 지비를 쌓아두기만 했는데 이제는 무한히 사용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음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음이 밝음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음이 기쁨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감동받고 갑니다.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사랑받고 무한히 사랑 나누며

이 아름다운 지구별이 밝아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卍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무관 | 25기 호스피스, 원주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조율(調律)하는 작업이다. 몰입하는 그 순간 재료·도구와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모니를 이룬다.

강한 목소리로 누군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하모니는 깨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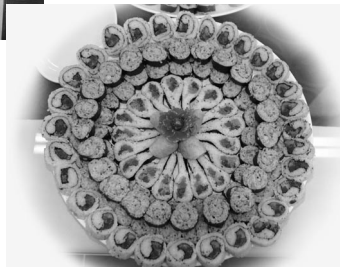
각자의 장점에 진정어린 칭찬과 좀 부족하고 모난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바라보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나만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공유(共有)하며 개인의 자신 있는 분야에 소임을 맡겨 본인의 재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되 최종적인 점검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맛과 색을 내려 해도 함께하는 모두가 화합이 깨지고, 연출하는 자가 없다면 그 음식은 죽은 음식이요. 에너지를 실어주는 음식이 아니다.

기억하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살아온 연륜이 있고 고집이 있다.

그들을 존중하고 보살필 줄 아는 시선이 있다면 다툼은 사라지고 좋은 에너지만 함께한다. 卍



그녀를 보내며

김경숙 | 24기 호스피스, 경주동대병원 봉사활동 중

찬바람이 몹시 불던 11월 말, 병상에 누운 채 많이 외로워하고 있을 은정이 엄마를 보러 갔다. 가을 추수가 완전히 끝나 스산하기만 한 넓은 들길을 지나 집 가까이 다가갔을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승용차들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감지했다.

‘은정이 엄마가 떠났구나.’

지난 토요일 복수로 탕탕해진 배를 쓸어주니 너무도 시원해하면서 ‘고맙다. 고맙다.’ 인사를 했었는데. 신다섯, 두 아이의 엄마 유태숙. 그녀는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낸 뒤, 남편은 지방으로 대학을 보내놓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당시 본인도 이미 유방암임을 알았고 지난해 유방 절제 수술을 했었다.

내가 그녀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지난여름 장맛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자원봉사하던 정애원(양로원) 세탁실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기에 소개해 주려고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암수술을 했고 항암치료 중’ 이라고 담담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초가을 무렵, 간에까지 이미 전이가 되어 치료를 중단하였다는 말을 풍문으로 전해 듣게 되었다. 그녀가 다시 시내 병원에 입원한 것은 11월 초였다.

그때 나는 날마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첫날 병실을 방문했을 때, 검게 변한 깡마른 얼굴, 눈과 눈 사이에 있는 화상의 흉터는 더욱 선명했고 입술은 핏기를 잃은 지 이미 오랜 듯 짙은 갈라진 눈바닥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리고 반쯤 풀려버린 파마머리, 복수로 볼록 튀어나온 배, 발목이 분간이 안 될 만큼 부어 있는 다리와 발.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의 전주

꼭처럼 처참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환자는 부른 배 때문에 침대 옆에 놓여있는 보호자용 의자에 걸터앉아 있었고 병수발에 지친 70대의 늙은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등 뒤에서 그녀를 꼭 껴안았다. 나도 그녀도 할 말을 잃고 그렇게 한참 있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날마다 그녀를 방문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남편이 암으로 세상 떠나는 것을 보아서일까? 죽음을 너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가끔은 ‘빨리 죽고 싶다’ 고도 했고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그녀의 흔들리는 눈에 나의 시선을 포갠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송을 불러주었다. 그녀의 흔들리던 눈이 아미타불의 염불송과 더불어 축축이 젖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평화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가본 적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 그런데 아미타부처님께서 이 외로운 영혼을 마중 나와 계신다면 얼마나 반갑고 의지가 될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우리는 같이 오랫동안 아미타부처님을 염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초파일과 동지에 절에 가니 ‘우리 집은 불교를 믿는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녀는 한참 후에 가슴에 담긴 서러움과 외로움의 얘기들을 털어놓았다. 우선 유정(아들)이와 은정(딸)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시어머니에게 죄스러움을 내놓으며 울먹였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흔들리는 어깨를 어루만졌다. ‘가슴에 품고 있는 응어리는 없냐.’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풀리지 않던 응어리를 쏟아놓았다.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응어리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다.

어린 나이에 도시 처녀가 농촌으로 시집 와서 힘든 농사일을 하니
어설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몸이 많이 축나 첫아이가 태어난

뒤 모유 수유를 못했을 때, 시아버지의 반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우유값을 벌기 위해 남편이 포항 철강 공단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교통이 요즘같이 좋지 않던 시절인지라 태풍이 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 몇 시간을 떠다 퇴근하던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도시로 나가 살려고 발버둥도 쳐봤지만 허사였다.

만아들이라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보내지 않은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은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내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런 무거운 마음은 가시는 길에 짐이 됩니다. 다 놓고 가세요. 훌훌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야지요.”

그녀는 눈으로 고개를 끄떡이듯 해보였다. 다행히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아서 20년 동안 얼굴 한 번 붉힌 적 없으면서 빙긋이 웃어보였다. 남편을 보낸 후 서로가 큰 의지가 되었던 것 같다. 두 아이를 맡아야 하는 시어머니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께 두 자녀를 부탁하고 많이 미안해 하다가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고 3일 후 세상을 떠났다. 내가 그녀의 시어머니 편에 연락처를 남겼었는데 마지막 떠날 때는 가족 모두가 경황이 없어 연락을 못했다고 하며 못내 섭섭해 했다.

요즈음 『티벳사자의 서』를 공부한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여, 이 영가를 향한 자비의 힘을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자비의 밧줄로 그녀를 붙잡으소서.
악한 까르마의 힘에 이 영혼이 굴복하게 하지 마소서.
아!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이여.
사후세계의 불행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소서. 卍

여행

지오 | 25기 호스피스, 광주지역 봉사활동 중

병실에 들어서니,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마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미간 사이의 찡그린 주름에서 고통스러운 걸 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가만히 곁에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꼬옥 감쌌다. 그가 힘들게 겨우 눈을 떴다. 고통마저도 사그라든 듯했다.

며칠 전에 본, 열에 들떠 혼수상태로 헛소리와 헛손질을 하던 모습은 오늘엔 없다. 아마도 그날은 심한 욕창 수술을 하고 난 뒤라 열에 시달렸던가 보다.

“등에 욕창이 심해 수술을 했는데 등뼈가 흰-히 보이도록 파냈어요. 그래서 그냥 1인실로 옮겼어요.”

그의 아내 말에 체념이 배어 있다.

“아니, 왜 욕창이 그리 심하도록 놔두셨어요. 자꾸 체위를 바꿔가며 두들겨 주고 주물러 주고 하시지.”

“자꾸 만지면 아프다고 해서…….”

이미 췌장암이 다리까지 전이되어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를 공기 매트 하나 없이 맨 침대 위에 하루 종일 누워 있게 했으니 어찌 욕창이 나지 않으리. 은근히 그의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초췌하고 주름진 얼굴. 젊었을 때 한때 흰 칠한 미남으로 못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가 지금은 이렇게 마를 대로 말라버린 나무토막 같다.

“면장님, 저 왔어요.”

젊어서 그는 면장을 하고 다시 농협 조합장을 했기에 나는 굳이 그를 조합장님이나 면장님으로 부른다.

싸늘한 그의 손을 잡고 나의 온기가 전달되도록 가만히 곁에 있으며 그가 다시 눈을 뜨도록 기다려보나 그는 영영 다시 뜰 기운이 없나보다.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수계식을 하러 왔는데 아마도 마지막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할까보다.

“면장님!”

가만히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불러본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까봐요. 이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고 결코 무섭거나 두려운 길이 아니랍니다. 이제 가시면 면장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님도 만날 수 있고 몇 해 전에 먼저간 아들 진성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진우엄마도 갈 건데 먼저 가서서 기다려 주실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그가 뭐라고 입을 달짝 거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

“네?”

신경을 곤추세워 귀를 바짝 갖다댔다.

“우리 진우…….”

아! 아들!

“진우 괜찮겠냐고 물으시네요.”

아내가 곁에서 거든다.

“진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젊고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잘 생긴 육신 주셨으니 지금 좀 고생해도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짱아요. 제가 곁에서 잘 돌봐줄게요.”

“우리 보살님께도 내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네, 자네 덕에 행복했었네, 사랑하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짐짓 큰 소리로 말해본다.

“아-니.”

그가 또렷이 들릴 정도로 단호히 말하는 것이 평생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배어나온다.

“그럼 지금 한번 해 보실래요?”

하지만 끝내 하지 못한다.

“진우한테 하실 말씀은 없고요?”

“진우한테 전화 한번 해줘.”

마지막 기운을 몰아 아들을 찾으신다.

“진우야! 아버지하고 얘기 좀 하게 얼른 와라!”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게다.

“면장님! 오늘은 제가 면장님께 불자로서 잘 사시다 가는 뜻으로 수계식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지요?”

“예!”

이제 그의 얼굴에 편안함이 깃든다. 나는 병실 한편에 작은 불단을 차리고 다라니를 외우며 수계 준비를 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의를 하니 그도 또렷하진 않지만 온 힘을 다하여 삼귀의를 후창한다.

오늘 그분께 잊지 못하던 아들 이름을 딴 진성 거사라는 범명과 함께 연비를 하고 수계식을 마쳤다. 병실을 나오기 전 임종까지 편안하길 기도하며 그의 초췌한 얼굴에 내 얼굴을 맞대고 꼭 안아주었다.

이승의 여행이 즐거웠기를 발원해본다.

좋은인연들의 이야기

(2007년 12월 01일 - 2008년 02월 29일)



정토마을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정토마을 후원가족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경미	강경숙	강기홍	강봉구	강석진	강순희	강영일	강영환	강희갑	고경태
고상균	고영현	곽정숙	권말연	권정옥	길홍재	길홍필	김경민	김계순	김구일
김규수	김기선	김길자	김낙녀	김남이	김남희	김도연	김동익	김두이	김명길
김명선	김복자	김봉수	김상원	김선태	김성호	김송자	김수환	김순득	김승기
김영곤	김영달	김옥연	김옥희	김완수	김은진	김일숙	김점례	김정길	김정란
김정혜	김종명	김종옥	김종진	김진평	김진희	김채민	김필수	김하림	김현순
김현철	김희재	김희준	남은주	노병순	노해숙	노홍숙	도위자	문용삼	민경희
박경희	박국자	박대일	박명숙	박문자	박봉동	박옥남	박은숙	박재권	박정건
방숙자	배경화	배영순	변채민	보적사	서경애	서병섭	서혜란	석정옥	성봉경
손세옥	손연옥	손영윤	손영후	송미정	신계호	신규호	신말선	신승호	신현중
심학연	안소연	양길례	양부연	양해산	오금선	오두석	오성찬	우선아	유용상
윤관순	윤병열	윤성춘	윤승환	윤영실	윤영희	윤정화	윤주원	이경우	이경자
이경점	이계수	이덕남	이동은	이상현	이순득	이순재	이애영	이영애	이윤정
이재희	이정민	이정용	이주영	이준희	이지운	이창월	이혜숙	이홍우	임방빈
임숙희	자비심	장성현	장순연	장용열	장월수	전두옥	전옥자	전희정	정금자
정만조	정문자	정미애	정승자	정영락	정영란	정영만	정영명	정영태	정우교
정주운	정지애	정찬수	조규성	조규숙	조숙희	조영돈	주만성	주명숙	지 철
진말숙	차향미	채진순	최병숙	최영혜	최예열	최옥영	최완식	최재호	최종일
최차실	최현숙	태선옥	홍경표	황순동	김명희4	김정숙8	김정옥5	김진숙4	박종순1
이경우2	이종선2	최영숙3	덕우스님	보문스님	정각스님	정견스님	탄국스님	맑은	
가람	서울메디칼								

좋은인연들의 이야기

◇ 관자재병원 건립불사 모연문 회향하여 주신분들

서민들을 위한 관자재병원 건립을 위해 '자비벽돌 후원모연'에 동참하여 주시는 많은 권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인연맺어 회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환스님 일념스님 혜신스님 김미애 전옥녀 임말남 임의춘

◇ 福돼지 회향하여 주신분들

사랑 가득 담아 정성으로 福돼지 회향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작은 몸매 사랑의 양식 가득 채워주실 분을 위해 福돼지 분양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강성봉 김민애 노성옥 이명숙 이창월 한점숙 이계덕 법경스님
성오스님 경주시니어클럽 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 물품으로 후원하여 주신분들

고봉스님(사과) 군산 흥천사 손려리(된장, 생필품 외) 김종호(쌀) 김경식(굴)
김향자(유자차, 밀가루) 노원에너지(한라봉) 류지선(두부, 콩나물) 단문자(꽃)
마하(배) 무루회 일동(뉴케어) 문용삼(환자간식) 박경숙(캐커피) 김옥희(도서)
배영순(한라봉) 배유경(쌀) 법성화(환자내의 외) 보문스님(쌀) 김정숙(사과)
불교간병사협회(휠체어) 불교총지중 실지사(쌀, 기저귀 외) 복광순(양파즙) 이경수(굴)
우룡큰스님(환자관찰 모니터) 이덕남(생대구) 지광스님(쌀, 미역 외) 이명순(굴)
이선자(환자약품) 이성은(믹서기) 이승용(환자간식) 대금강(갓김치) 이연옥(불가리스)
이영애(세제, 티슈) 이영의(굴, 바나나) 최이영(해산물) 최태욱(사과, 배 외)
이지원 외 7명(미역, 김) 임평환(환자수액) 자비심(비누, 치약) 자이요가(방석)
적십자세계로(케익) 정견스님(망고) 정금자(멸치) 함월사(쌀) 정영혜(휠체어, 침대)
지정선(백도) 인봉산약회(멸치액젓, 삼치 외) 학림사(차가버섯, 환자간식)
한화봉사단 부강팀(환자내의, 환자간식 외) 해산(양말) 현대자동차불자회(밀가루, 생필품)
현승환(한라봉) 제26기 호스피스교육생 일동(과일, 환자부식 외) 김미영 민명숙
민정원 송시경 임대스님 전동환 정자현 김백산스님(라면, 환자내의)
환자보호자(환자간식) 25기호스피스교육생일동(칫솔살균기)

좋은인연들의 이야기

◇ 몸소 방문하여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

바쁜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나눠주고 가신 봉사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강유숙 고재호 공용식 기쁨 길용길 김재연 김재홍 김정한 김종원 김주성
김진영 김춘자 김홍식 나병호 노영순 도종태 류지선 문경동 보천 아미고
양정임 오정순 우호범 원만성 원희정 유미 윤춘혜 이성은 이성익 이순옥
이슬기 이연옥 이인희 이종구 이지원 이해림 자운 정념희 정영숙 천성실
천인규 천진실 최금자 최재진 한미하 한숙자 김기수 김성준 장성철 장하덕
장하석 엄금희 유희 신유호 정념희 한숙자 이은희 외 8명 고봉스님
덕현스님 상진스님 정호스님 법성선원 용화봉사단 적십자세계로 한물사랑회
KT포에버 R&B미용실 한화봉사단 부강팀 현대자동차불자회 수원불교청년회

◇ 정토마을 환우분께 필요한 물품

욕창방지 에어매트 10개 벽걸이 온풍기 5대 잡곡, 찹쌀
1회용 매트 괄티슈, 물티슈 욕창용품

정토마을 환우님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실
일반, 단체, 장기 봉사자님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오시기전 미리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
시면 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픈 봉사자님 많이많이
와 주세요~!

후원물품계좌 : 농협 401120-51-017456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관자재병원 건립 불사

인간에게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상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고통과 슬픔은 환자의 삶의 질을 피폐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앗아가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하여 건립될 관자재병원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빈곤감을 완화시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건립 계획

-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現 마하보디교육원 동일부지 내)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4층(약 1,050평)
- 주요시설 : 일반재가병동, 승가요양병동, 중환자병동, 재활물리치료실 등
- 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서민들을 위한 외래진료, 재활치료, 가정방문간호 등
- 2008년 3월 현재 세부설계 진행 중

관자재병원 건립후원 안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불치의 질병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평등한 의료복지혜택과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관자재병원 건립불사에 뜻있는 많은 정토가족님들께서 동참하시어 온 세상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는 소중한 인연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401131-51-075952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동참해주신 건립기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건립기금 기부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자재병원,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64-1007 FAX: 052)264-0209

홈페이지: <http://jungtoh.com>

E-mail: jungtoh@jungtoh.com

병들어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평화로운 안식처

정 토 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녀산 자락에 위치한 정토마을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안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호스피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병들어 고통받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환우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독립형 호스피스요양센터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우에게는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돌봄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며, 환우가족에게는 사별 간호를 통해 사별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토마을 운영

1. 대상 : 말기암 또는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
2. 운영 : 촉탁의,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의 24시간 전인적인 돌봄

◆정토마을 이용안내

1. 입소신청 (전화, 팩스 - 환자의 진단서 제출)
2. 상담 (전화, 방문)
3. 입소심사 (정토마을 입소기준에 의거 심사)
4. 입소통보 및 입소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방향에서 오시는 길|

중부고속도로-증평 I.C-내수-조정약수
-미원방향-정토마을

|부산방향에서 오시는 길|

경부고속도로-영동 I.C-보은, 청주방향
-미원-조정약수-정토마을



소 중 한 인 연

후원가족을 모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정토를 일구어 주시고 계시는 후원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토마을에서는 언제나 소중한 마음 나누어 주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토마을을 소개하고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삶의 중추역에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께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정토마을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시설인 관자재병원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후원안내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현금, 물품후원
- 후원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 후원금 입금계좌

- 농 협 : 401120-51-016794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국민은행 : 713701-01-001909



-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한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운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기존 지로후원 회원님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사무국으로 신청)

3월부터 후원가족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 입금내역을 입금일로부터 2~3일 내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핸드폰번호 누락 등으로 입금 내역 확인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금 입금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안내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스피스윤리중에서-

제27차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안내

- ➔ 일 정: 2008년7월 26일(토)~8월 2일(토)
- ➔ 내 용: 35개 전문과목을 통한 호스피스전문인력 양성교육
- ➔ 대 상: 스님 포교사 및 불교인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 원서접수: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접수
- ➔ 교 육 비: 59만원(학인스님 20%할인), 교재비별도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과 졸업생을 위한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안내

- ➔ 일 정: 2008년7월 6일(일)~7월 12일(토)
- ➔ 내 용: 35개 전문과목을 통한 호스피스전문인력 양성교육
- ➔ 대 상: 봉녕사학인스님/봉녕사졸업생스님(60명)
- ➔ 교 육 비: 59만원(교재비 5만원별도)
- ➔ 주관/주최: 봉녕사선우회/마하보디교육원

※ 승가에서는 처음으로, 스님들만을 위한 호스피스교육이 봉녕사승가대학 학인스님과 졸업하신 선우회 스님들을 모시고 마하보디 교육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특별교육에 아마타호스피스교육을 수료하신 동문스님들께서는 교육진행과정에 깊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담당자 : 정건, 010-3080-9922)

21세기 보디사트바의 길!
오직 경험을 통한 자각과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온전함으로 치유하고
고통에 직면한 중생들을 치유와 돌봄으로 함께하는 여정...
호스피스 전문가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마하보디교육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전화: 052-264-1007
정 토 마 을 :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전화: 043-298-2258
홈 페 이 지 : <http://jungtoh.com>